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3. 10. 24

한국산업위생협회

2023년도 장학금 지급 시행예정

1. 목적
 - 1)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배려 2) 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젊은 인재 발굴
2. 지급 방법
 - 1) 인원 : 5~6명 2) 금액 : 1인당 100만원 3) 지급명의 : 한국산업위생협회장(한국산업위생협회 발전기금운영위원장)
3. 자격 요건
 - 1) 협회 정회원(일반회원, 평생회원) * 가입예정자도 가능 2) 산업보건(위생)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5 이상(박사제외) 3) 산업보건(위생)업무종사자
4. 추천자(기업 & 기관)
 - 1) 협회 실행임원(회장, 이사, 감사), 평생회원 2) 작업환경 측정기관협의회장 3) 발전기금운영위원장 및 발전기금운영위원 * 선정 및 평가는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5. 서류 및 기한
 - 1) 학교, 직장의 재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2) 제출기한 2023. 10. 31(화)까지
6. 기타사항
 - 1) 추천자가 취합되면 세부 진행일정 별도 수립예정임.

발전기금 모금요청의 건

1. 기금 요청 목적
 - 1) 산업위생전문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단합
 - 2) 산업보건종사자 및 회원들을 위한 활동
2. 기부방법
 - 1) 현금 : 계좌번호 국민은행 260201-04-2151153 예금주 한국산업위생협회
 - 2) 현물 :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와 기부자 간의 협의
 - 3) 정기적인 기부를 위해 자동이체(CMS)가능함.
3. 기부혜택
 - 1) 법인 : 지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10% 한도 손비 인정
 - 2)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단, 3천만원 초과시 25% 한도)
4. 기금 지원대상 및 운영방법
 - 1) 지원대상 :
 - 협회지 발행, 장학금 지급, 학술대회, 워크숍, 힐링캠프, 체육활동
 - 기타 발전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
 - 2) 운영방법 : 협회 재정과는 별도 비용집행 및 회계처리, 정기적인 감사 실시, 운영실적 정례보고
5. 기타사항
 - 1)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자동이체 이용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알림소식/발전기금운영위원회 참조
 - 2) 문의사항 : 발전기금운영위원회 양정란 간사(010-2345-3035)

정부·국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사연구위원 채용 공고(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3 - 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분야 : 산업안전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 * 산업안전공학,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축안전, 토목안전, 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유해물질관리, 산업재해 통계 분야 등
- 원서접수 기간 : 2023. 10. 23.(월) ~ 2023. 10. 31.(화) 18:00
- 선발 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담당부서(연락처) :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6)

기타 세부일정 및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1000953

(참고) 고용노동부,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일제 감독 실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건설 6번째, 대우건설 5번째 사망사고 발생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순위 2위 업체인 현대건설에서 6번째,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인 대우건설에서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두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디엘이앤씨(7건, 8명) 다음으로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같은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하여 10월~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65

안전일터 위해 우리 모두가 “안전원팀”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협의회·(사)한국건설가설협회·(사)안전보호구협회와 업무협약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과 10월 13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체결기관과 함께 산업현장에 안전문화 슬로건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캠페인 슬로건과 관련된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하며, 건설안전협의회, (사)건설가설협회, (사)안전보호구협회는 주요 건설회사, 가설물 제조업체 및 보호구 제조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내·외부 시설물과 안전보호구 등을 통해 안전메시지와 다양한 안전문화 콘텐츠가 산업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노출될 수 있도록 체결기관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한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문화가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되고 중대재해 감축에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67

전국 각지에 안전문화 꽃이 활짝 피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국 39개 지역에서 시민참여 캠페인, 안전문화 협약 등 다양한 안전 문화 확산 활동 지속 전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의식과 문화는 ‘위험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아, 일상속에서 안전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39개 지역에 구성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실천적 활동을 수행하고, 기업과 국민들도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72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세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사업장 44%에서 위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220개소, 7.10.~8.31.) 결과를 발표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80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전시회 관람하세요!

가상세계에서도 안전이 최우선!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전시회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직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에는 매년 공제회가 주최하는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16점과 역대 수상작 일부가 전시될 예정이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10월 18일(수)부터 10월 22일(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내 메트로미술관, 그리고 11월 22일(수)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관람 후기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며, 공제회 대표 누리집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장관상) 수상

- 산업안전 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보급 및 가상현실 체험 교육 저변 확대 추진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0월 18일(수)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미래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안전 관심도 향상과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3차원 가상체험 플랫폼인 '제페토' 내에 "안전보건 캠퍼스, 구해줘요 안전의 신" 채널(월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공단 최성원 교육홍보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나는 체험형 교육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안전한 일터조성의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90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684

고속도로를 타고 안전문화가 달린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한국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표로 20일(금) 10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차량과 근로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될 예정이다. 휴게소 내 식당 등에 설치된 모니터로 안전문화 TV 캠페인 영상이 송출되고, 휴게소 입점 카페, 음식점의 컵 홀더와 식품 용기에는 안전문화 메시지가 인쇄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휴게소 건물 입구나 화장실 입구 등에는 안전문화 슬로건이 담긴 배너를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할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70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31000563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10/4, 대구 달서구] 프레스로 제품 생산 중 프레스 부품이 떨어지며 맞음
 [10/7, 경북 포항시] 지붕 상부에서 지붕재 해체 작업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며 떨어짐
 [10/9, 강원 평창군] 지붕 상부에서 작업 중 밟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어 떨어짐
 [10/10, 경기 안성시] PC거더 설치 중 거더가 전도되며 고소작업대에 충돌하여 떨어짐(7m)
 [10/10, 경기 시흥시] 고소작업대에 연결된 로프가 트럭에 말려들어가 작업대가 넘어짐
 [10/10, 울산 북구]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10m)
 [10/11, 인천 서구] 거꾸집 동바리 해체 및 자재 반출 작업 중 개구부로 떨어짐(3m)
 [10/12, 인천 서구] 갠트릭레인 레일 옆에서 작업 중 크레인과 주변 구조물 사이에 끼임
 [10/9, 충남 보령시] 외부 비계 해체 작업 중 넘어지는 자재에 맞음
 [10/13, 경남 김해시] 창고 지붕 판넬 시공 중 떨어짐(5m)
 [10/13, 경기 용인시] 지붕 수리 작업 중 떨어짐(1.6m)
 [10/14, 전남 나주시] 덤프트럭 정비 작업 중 바퀴에 깔림
 [10/14, 전남 나주시] 덤프트럭 정비 작업 중 바퀴에 깔림
 [10/17, 충북 음성군] 판넬 설치를 위한 실측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6m)
 [10/17, 대전 대덕구]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10/17, 대전 대덕구]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건물 외벽 마감재 보수작업 중 떨어짐(4m)
 [9/21, 서울 강남구] 고소작업대로 운반 중이던 자재가 떨어져 맞음
 [10/12, 전북 전주시] 지게차 포크에 톤백 고리를 걸다 바닥으로 떨어짐(2.3m)
 [10/19, 전남 함평군] 지붕 위에서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3m)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수행기관 재공모(3차)

- 보건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공고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2023년도『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수행기관을 첨부와 같이 추가 (재)재공모(3차)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위탁)」수행기관 재공모(3차)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notice.do?mode=view&articleNo=44665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오이레터

영화 속 환경건강 이야기 : '다크워터스(Dark waters)'

• 방대한 자료 속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화학물질

영화는 변호사 롬이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변호 요청을 처음 받게 된 1998년에서 시작합니다. 대기업을 변호해야 하는 로펌의 변호사인 롬은 오히려 Du Pont의 반대편 입장에서 조사를 착수하지만, Du Pont은 쉽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롬을 골탕먹이려는 듯 창고를 꽉 채울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롬에게 건내주었습니다. 이에 질 수 없었던 롬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C8이라는 정체불명의 화학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롬은 C8이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임을 알게 되고, 이것을 마시는 것은 마치 타이어를 삼키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끈질긴 조사를 통하여, 롬은 거대한 화학 기업이 C8이라는 물질을 무단 방류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과 가축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강하게 믿게 됩니다. 문제는 기업이 C8의 환경과 인체에 대하여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묵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롬과 주민들은 거대 기업인 Du Pont을 상대로 힘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제 변화할 때

• 전문가를 육성하지 못하는 교육

땅 위의 동물은 사자를, 바다 속 동물은 고래를, 하늘의 동물은 독수리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의 왕을 뽑으려고 하자, 사자와 독수리는 수영을 못하고, 고래는 날지 못하니, 결국 오리를 왕으로 뽑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는 뒤뚱거리지만 걷기도 하고, 수영도 좀 할 수 있으며, 날기도 하니 조금씩은 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전보건분야에서는 두리몽실한 지식으로 기계적인 대응만 하는 인력이 아니라,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 산업현장 근로자 교육의 괴리
- 이론·자격과 실무와의 괴리
- 자격증 취득 후 애로사항
- 직무교육기관의 문제

• 안전보건교육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향상시켜 안전한 행동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는 안전문화 형성으로 이어져 재해율을 감소시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인적 요인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작업보건연구원(Institute for Work & Health ; IWH)은 안전보건교육이 지식, 태도 및 행동방식 등의 변화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사고경험을 줄였습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4/>

추정의 원칙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산재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상병수당이 없습니다. 질병치료기간 동안 치료비와 임금을 받는 방법은 산재승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산재신청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산재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노동자들의 불안은 증가하고, 만약 불승인이 된다면 손해는 커집니다. 이것이 노동계가 산재승인까지의 기간단축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산재 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개선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부담작업으로 파악된 직종에 대해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 추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추정의 원칙은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추정의 원칙은 이미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소의 용접과 취부 혹은 건설의 형틀목공과 같은 직종은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유무 등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현장조사를 생략하여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추정의 원칙 = 인정기준?

한편 경총과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의 원칙을 인정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재승인율이 증가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합니다.

-이하 생략-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52letter.stibee.com/p/35/>